

광 고

# 원양산업

제 1167 호

(2024년 3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협회, 2024년도 정기총화이사회 개최 / 4
- 해수부-오징어 업계, 오징어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5
- 협회, 차량계량소 이전 개소식 개최 / 6
- 2024년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7
- 협회, 조업감시센터-원양참치업계 간담회 참석 / 7
- '식량안보 지키는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절실 / 8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4년 2월 보고 내용 / 9

### 이달의 요리

- 참치 크림치즈 타르타르 / 14

### 해외수산정보

#### ■ 국제유가 동향

- 3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801달러 / 15

####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1월 선망 어획량 14만 7,010톤 / 16
- 동부태평양 23년 가다랑어 어획, 50년 중 최대치 / 17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00달러 / 18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50유로 / 18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64엔 / 19
- 日 냉동 참치류 1월 수입 통계 발표 / 20
- EU, 그린워싱 규제 법안 진전 / 21
- PNA 선망어업 MSC 재인증, 분쟁 절차 돌입 / 22
-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량, 30년간 최저치 / 23
- GTA, 일본 메이호社와 제후 계약 체결 / 24
- 2024년 태평양 동부 참다랑어 어획량 한도 발표 / 24
- NFI, 최초의 세포 기반 참치 스타트업 환영 / 25

#### ■ 오징어어업 동향

- SPRFMO, 노동 및 인권 침해 대책 지지 선언 / 26
-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매입 경쟁 심화 / 27
- 페루 수산물 수출, 15.4% 증가 / 27
- 日 오징어 어획량, 60년 만에 최저치 / 28
- 日 살오징어 어획량, 3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 / 29

## Contents

### ■ 명태어업 동향

- 명태 어업, 긍정적인 역동성 유지 / 30
- 러, 2월 중순까지 62만 6천 톤 어획 / 30
- 러, 2월 말 전체 어획량 88만 톤 초과 / 31
- 러, 3월 5일까지 66만 5,000톤 어획 / 31
- RFC, 명태 연육 생산량 두 배 늘어 / 32
- 러-벨라루스 합작 기업, 러 명태 조업 / 33
- 러, 남극 어업 재개 / 33
- 알래스카 명란 경매, 10% 증가 / 34

### ■ 꽁치어업 동향

- 러, 꽁치 자원 남극일 어장으로 회귀 예상 / 35

### ■ 각국 수산 동향

- WTO 수산 보조금 협상, 합의 도달 실패 / 36
- 美, 수산 보조금 문제에서 노동자 권익 강조 / 37
- EU 지속가능성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 38
- 홍해 위기로 공급망 붕괴 및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 / 39
- EU가 다시 한번 태국 수산업에 영향 / 39
- 中, 라틴 아메리카 해양 생태계 위협 / 40
- 남극의 경제적 이익은 최소 2,760억 달러 / 41
- 러시아 어류 가공 장비 시장 크게 성장 / 42
- 러연방수산청 해외수역 쿼터 판매 / 42

- 러, 바렌츠해에서 꺾 어업권 박탈 / 43
- 러 수생 자원 이용세 공제 법안, 상원 승인 / 43
- 러, 남태평양 수역의 지속 가능 어업 합의 / 44
- 美, 러시아 원산 수입 수산물 유예 기간 연장 / 44
- 러 내각, 연료 보조금 취소 / 45
- 日 2023년 가계 어패류 지출, 실질 8% 감소 / 45
- FAO, 1950년 이후 세계 어업의 진화상 제시 / 46
- 美, 새우를 덜 구매하기 시작 / 47
- 성인이 섭취해야 하는 생선의 양은 얼마일까? / 47



### 쉬어가는 난

- 바닷가에서 3 - 정연복 / 48



### 국내 수산 정보

-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9
- 2월 명태 국내 동향 / 51
- 수산물 부담 완화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 53
- 원양 준법조업의 나침반 조업감시센터 10주년 / 54
-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 55
- 원양산 오징어 신속 공급으로 수급 불안 해소 / 56
-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 개시 / 57

## 협회, 2024년도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우리 협회는 2월 22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김영규 전 한국수산회장을 회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하였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협회는 또한 정기총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였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기총회 부의안건 등을 승인받았다.

김영규 회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막중한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국제협상, 연안 국가의 ODA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원양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연안국들과 새

로운 어업 협력 모델구축, 국제기구에서 쿼터 확보, 사업의 다각화, 현지화 등을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원양산업의 미래는 밝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이형균 이사(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부산지부장)를 재선임하였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선도국가를 목표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 원양어선 안전편드를 통한 생산·안전·복지 강화 △ 노사협력을 통한 선원수급 안정화 및 국제 이슈 대응 △ 경영여건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교육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협의 △ 원양산업 홍보와 정보 제공을 제시하며 생산량 및 수출액을 72만톤(합작포함), 4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 해수부-오징어 업계, 오징어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원양 오징어 조업 상황 및 조기 공급 방안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및 오징어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오징어 조업 현황 및 국내 공급 시기 등을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송명달 차관, 유통정책과장, 원양산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경태, 동남, 선민수산, 사조오양,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참손푸드, 흥진실업(가나다순)에서 참석하였다. 협

회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양 오징어 조업 상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원양 오징어의 조속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오징어 업계에서는 국내 반입 시기에 조속한 정부 비축(원양트롤산 포함) 실시 및 규격기준에 대한 유연화를 요청하였다.



## 협회, 차량계량소 이전 개소식 개최

### 불법 어획물 유통 막고 지속가능 어업 위해 노력



우리 협회는 차량계량소를 부산 감천항 인근(주소: 부산시 서구 암남동 734-1)으로 이전하고, 지난 2월 19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협회 차량계량소는 2010년 원양선사 참치 어획물의 투명한 계량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회원사/비회원사 또는 수산물/철근 등 구분 없이 정확한 계량으로 부산 지역 내 유통/가공업체의 신뢰를 얻고 있다. 차량계량소의 연간 계량 건수는 약 1만 건으로, 약 13년간 누적 계량 중량은 약 160만 톤에 달한다.

협회장은 “차량 계량소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부지 제공 및 도로 점용 허가 등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원양노조 등에 감사드린다.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단시간에 계량소를 이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MSC 인증 등 투명한 어획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소식을 통하여 협회 차량계량소가 앞으로도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및 투명한 어획물 측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하였다.

협회장은 또한 “협회 차량계량소는 우리나라 원양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일선에서 노력할 것이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하였다.



## 2024년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 민·관 협력방안 등 논의

‘2024년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가 지난 2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양자원과장이 참석하였고, 원양자원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에서도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 티앤에스산업, 한성기업, 흥진실업(가나다순)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1·2부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오피버 커버리지, 전자모니터링시스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MSC 인증 증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협회, 조업감시센터-원양참치업계 간담회 참석

### 업계 청취 및 건의사항 등 전달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7일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 2층에서 개최된 조업감시센터-원양참치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장, 조업감시팀장 등 11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수산자원공단 TAC 관리팀에서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경양수산, 대해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쓰리티오션, 아그네스수산, 한성기업(가나다순)에서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1부에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IUU어업 사례 및 EEZ 현행화 현황

등이 논의되었고, 조업감시센터 측 당부사항 전달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업감시시스템 참관 및 지도선(무궁화 21호) 방선 시간 등을 가졌다.





# ‘식량안보 지키는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절실

## 식량자원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대한  
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쌓았고, 원양어업은 지금도  
물가안정과 국가 식량 안보에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원양어업, 원양산업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며,  
특히 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박은 해외 영토의 연  
장선과도 같다.

이처럼 원양어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  
이나, 실상 우리 원양어업은 국제 해양 질서라는 밀림  
속에서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가 아닌 곳이 산업현장이며, 선  
박이라는 격리된 공간이 집이다. 이 공간은 육지처럼  
정지된 공간도 아니다. 이런 특수성으로 선원 근무 기  
피 현상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양 어업국의 선원은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외국인 선원 눈에 비치는 한국의 원양어선은 곧 한  
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이다. 전세계적인 선원 부족 현  
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국가의 선박을 선택하여 승선하  
는 것이 가능한 외국인 선원 입장에서, 굳이 우리나라  
의 선박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국가 이미지 및 선상  
복지가 타국 대비 좋은 편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육상 근무자에  
게 간편히 제공될 수 있는 식료품 구매 및 의료 서비스  
등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사소한 문제라도 관리 불성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오인되기 쉬우며, 인접한 외국 연안국과 국제  
수산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로 전파된 정보는 왜곡

되어 세계의 안줏거리가 되기도 한다.

10년 전 우리나라가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되었을  
때 강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출입 중단을 엄포하며  
무리한 제안 및 벌칙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  
항해 시대와 19세기 및 20세기 초 강국들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교역을 핑계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탈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  
며, 위반 사항 발생 시 반사적 이익을 노리려는 정글과  
도 같은 곳에서 우리 원양선원들은 목숨 걸고 식량자  
원을 확보하며 국내 물가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원 무기화로 자국의 이익을 극  
대화하고 있어 인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식량자원  
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원양어  
업은 우리나라에서 어획할 수 없거나 국내 어업만으로  
는 부족한 수산자원을 해외 연안국 EEZ 및 공해수역  
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원양어업은 우리나라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 수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식량 산업이라 국  
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것이다.

중국은 식량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섬을 개발  
하여 EEZ를 선포하고, 일본은 영해 확보를 위해 섬  
조사에 나서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 자원의 무기화’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월간 현대해양 2024년 1월호 수록〉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400
	3.4~10kg	1,300
	1.8~3.4kg	1,200
눈다랑어	10kg~	1,250
	3.4~10kg	1,250
	1.8~3.4kg	1,200
가다랑어	3.4kg~	1,200
	1.8~3.4kg	1,250
	1.5~1.8kg	1,050

####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료/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778	'24.2.26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이주 감소로 노동력 부담 감소

- 피지는 최근 2년간 2만 5,627명의 기초교육 완료자 및 젊은 경력자의 호주 및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으나,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의 충분한 노동력 유입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대부분 비자 만료 시 피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였다. 이에 피지 정부는 노동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안가공용(PAFCO)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185	'24.3.8



##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

### 가. 선원 및 선박 구출 성공

- 지난 2월 4일 Royal 27 선박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선장 포함 14명이 구조되기까지 27시간 억류되었다. 해적은 납치 선박에서 유류, 선원의 돈과 개인 소지품, 선용품 및 선박 항법장치를 빼앗아 갔다. 이에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는 해양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적을 추적하여 선원과 선박을 구출하였다.

### 나. 새 대통령 해양산업 관심

-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예고하였다. 대통령 당선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산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불법 어획 선박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하도록 강력한 해군 구축과 어민이 배를 직접 소유하여 바다를 지키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 정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kg)
오징어	15~25cm	2.5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70	'24.2.20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4~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를 평균 0.2~0.4톤을 어획하여 전월보다 어획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450
눈다랑어	라운드	1,250
가다랑어	라운드	1,250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29	'24.3.8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였다.

### 가. 오징어 동향

- 2월 중순부터 작은 사이즈(2S) 오징어 위주로 어획되기 시작하였으며, 3월 초까지 꾸준히 어획되었다. 하지만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750
	L	6,950
	M	6,425
	2M	5,850
	S	4,450
	2S	4,350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1,124	'24.3.6

##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세이셸 해적 위협

- 세이셸 해안경비대는 배타적 경제 수역 동북쪽에서 최근 해적 위협이 감지되어 어업 종사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 나. 수산물 점유율 감소로 정부 지원 요청

- 모리셔스 어민은 수입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60%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에 외국 어선 단속과 급증한 어로 운영 경비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였다.

### 다. 관공서에 냉동 참치 공급 계약

- Tripod Fish Ltd.社は 가공 냉동 참치를 1년간 모리셔스 경찰에 공급하는 300루피 가치의 계약을 통하여 관공서에 안정된 수산물 공급을 약속하였다.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VIVO	MGO	985	'24.3.7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 가. 어업 동향

- 2024년 어업 활동은 지난해 대비 17.2% 감소하였다. 이중 홍새우 생산은 5.2% 감소, 오징어류 생산은 36.6% 감소하였다. 선박 종류별로는 빙장선의 생산량이 3.1% 감소, 선동 선박은 40.1% 감소하였다.

### 나. 중국 조업선 피항 허가

- 아르헨티나 해군은 폭풍으로 중국 어선 259척의 해상 피항을 허가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 합동해상사령부에서는 중국 선박 감시를 주요 임무로 채택하고, 항공기를 통하여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 다. 중국 불법 조업선 감시 작전 개시

- 아르헨티나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에서 조업하며 주기적으로 불법 입어를 하는 중국의 조업선에 대한 감시 작전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640	'24.3.8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 가. 해양대학교 첫 선박 건조

- 가나의 지역해양대학교에서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유리 섬유로 선박을 건조하기로 발표하였다.
- 이 선박을 통하여 가나와 서아프리카 어장의 감시·보안 및 어업에 사용 예정이다.

### 나. 높은 통관 비용으로 통관 대리점 불만

- 가나 세관통관대리점협회는 코로나19 건강회복부담금과 보건부 소득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등 높은 통관 비용으로 업계의 주요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 가나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한국에서 도입된 통합관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절차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효율적이지 않아 종이 서류가 없는 항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항만 프로세스를 단순화 및 간소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 다. 여성의 해양 산업 최전선 역할 촉구

- 국쟁운송노동자연맹은 세계 해양 노동력의 2%만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된다고 알렸다.
- 가나 항만청 국장은 해양분야의 여성 진출을 독려했다. 또한, 가나는 여성 항만 국장도 배출하였으며, 조직 내 여성의 수가 18%에서 20% 사이로 증가하는 등 향후 5년 이내 여성이 해양분야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1,0445	'24.2.29

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916	'24.3.8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 가. 수산물 수출 시장 상황

-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의 대표적인 수출 아이템은 참치 통조림이지만, 바닷가재, 머드크랩, 건해삼, 새우, 가오리 등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 최근 중국(홍콩)의 시장 폐쇄 조치에 따라 수산물 수출이 원활하지 않아 싱가포르 등으로 수산청의 주도하에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수산업자의 수출을 돕고 있다.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 나. 수산업과 식량 안보

- PNG는 자체적인 단백질원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물류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PNG 인구의 절반은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 단백질원은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으로 수산물의 소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이에 고산지대 거주 국민 대부분은 수입 식품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는 어목을 제조하여 자체 시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질의 단백질 공급, 국민 건강 증진, 새로운 식문화 창출 기회를 제





## 참치 크림치즈 타르타르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참치 1캔(100g), 양파 1/4개, 오이 1/4개, 파프리카(빨/노) 1/4개, 바게트(또는 식빵) 5조각, 레몬즙 약간, 크림치즈 1큰술, 마요네즈 1큰술, 어린잎 약간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양파, 오이,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 준비한다.
- ② 바게트는 얇게 썰어 토스터기 혹은 팬에 구워준다.
- ③ 참치(기름 제거) + 레몬즙 + 크림치즈 + 마요네즈 + 잘게 다진 채소(양파, 오이, 파프리카)를 넣어 잘 버무린다.
- ④ 모형틀에 눌러 모양을 내고 틀을 제거한다. 만약 모형틀이 없다면 종이컵을 사용한다.
- ⑤ 참치타르타르에 어린잎과 구운 바게트를 곁들여준다.



## 3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801달러

3월 7일 기준 803달러

3월 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2.44달러, WTI 가격은 78.39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2.96달러를 기록하였다.

3월 7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803달러로 2월 7일(814달러) 대비 약 1% 하락하였다.

3월 평균(3.1~3.7) 가격은 801달러로 전월 평균(2.1~2.29)인 820달러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전년 3월(3.1~3.31) 평균보다는 5% 상승하였고, 전전년 3월과 비교하면 25%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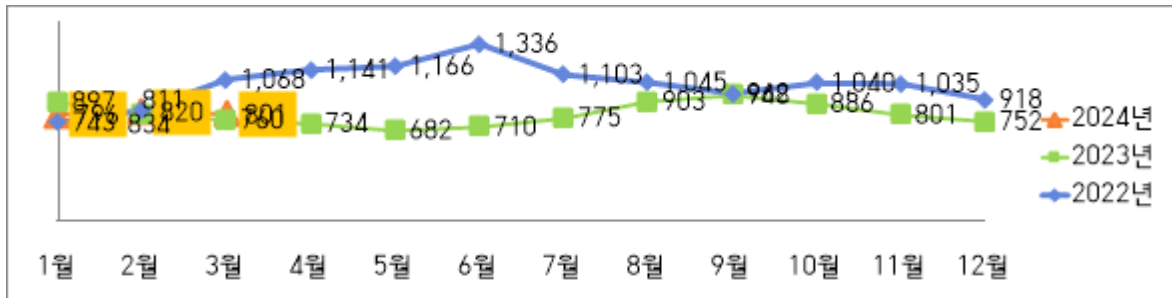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3.7) 가격은 801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1% 상승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2%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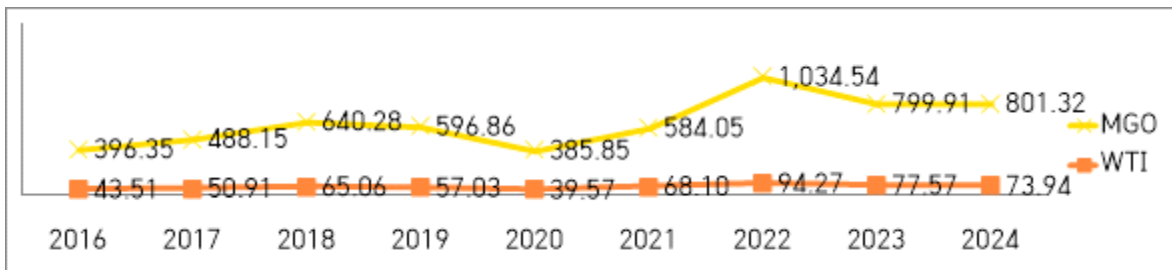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자발적으로 예정된 원유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우디·이라크·아랍에미리트·오만·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에서 감산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한 후 금과 원유 가격이 변동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 공격에 대한 강경 대응 및 차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확산 조짐이 제기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원유 시장과 안전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 중서부태평양 1월 어획량 14만 7,010톤

1월 전재량 8만 6,861톤

중서부태평양의 2024년 1월 선망어업 노력량은 감소하였으나 어획량은 증가하였다. 참치는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등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서부 수역으로 이동 중이며, 토켈라우에서도 많은 어획량이 보고되었다. 올해 1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1월 가다랑어 어획량 평균 대비 44%나 많았다. 이는 방콕 가공업체에 또다시 가다랑어 대량 공급이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월에 선망선단은 총 3,132일의 선박일 수제도(이하, VDS)를 사용하였다. 이는 2023년 12월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감소하였으나, PNA 도서국 EEZ에서는 유지되었다. PNA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어업 노력은 12월 대비 4% 감소하였다.

참치의 이동에 따라, 선단은 중서부태평양 서부 수역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마셜제도 EEZ에서의 어업 노력은 전월 대비 582% 증가하였고, 마이크로네시아 EEZ에서의 어업 노력은 44% 증가하였다. 나우루 EEZ에서의 어업 활동은 27% 증가하였고, 토켈라우 EEZ에서는 27% 증가하였다.

2024년 1월에 총 14만 7,010톤의 참치가 어획되었다. 이는 1월 어획량 역대 최대치이며, 전월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다.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토켈라우, 나우루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토켈라우의 일일 어획량은 12월 대비 7배나 되는 59톤까지 증가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와 나우루의 일일 어획량은 37톤으로 증가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40톤으로 30% 증가하였다.

전체 일일 평균 어획량은 39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월 일일 어획량 역대 최고치이자 12월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36톤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약 2톤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하였다. 소형 황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1톤에 그쳤다. 대형 눈다랑어는 54% 감소하였고, 소형 눈다랑어는 12% 감소하였으나, 양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PNA 항구의 2024년 1월 전제 활동은 많은 전제량과 함께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다.

PNA 항구의 참치 원어 전제량은 8만 6,861톤으로, 작년 12월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5년을 통틀어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11월(약 8만 9,000톤)과 비교해도 2% 적은 수준이다.

PNA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선박의 전제량은 집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전제량은 데이터 이상일 수도 있다. 올해 1월의 전제량은 지난 수년간의 1월 전제량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다.

마셜제도에서의 어획량 및 어업 노력은 1월에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마주로에서의 전제량은 전월 대비 19% 증가한 2만 8,664톤으로, 전체 전제량의 약 33%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PNG로, 약 2만 6,927톤의 전제량을 기록하였으나, 전월 대비 5,000톤 감소하였다. PNG 수역 어획량이 전월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제량 감소 또한 그 결과인 것으로 관측된다.

투발루에서의 1월 일일 어획량은 약 40톤에 달했고, 전제량은 6,0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22일자



## 동부태평양 23년 가다랑어 어획, 50년 중 최대치 가다랑어 38만 8,591톤 어획

동부태평양 참치 선단의 2023년 가다랑어 어획량이 약 5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주요 상업용 참치종의 총어획량은 지난 50년간의 연간 어획량 중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2023년 동부태평양 전체 어종 어획량은 73만 8,553톤으로, 2022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가다랑어 어획량 급증에서 기인하였다. 동부태평양 2023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38만 8,551톤으로, 전년 대비 7만 5,581톤 증가하였다. 동부태평양의 어획량은 초반에 순조로웠으나 2분기에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에콰도르 만타에 양륙된 어획량 또한 이 기간 동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가다랑어 가격은 한때 톤당 1,92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금어기(veda)에도 불구하고, 동부태평양의 7~9월 어획량은 9만 9,975톤을 기록하며 전년도 동기 어획량(9만 6,925톤) 대비 증가하였다. 12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많은 공급과 낮은 수요로 인하여 톤당 1,650달러를 기록하였다.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의 총어획량 또한 증가하였다. 황다랑어의 2023년 어획량은 30만 2,704톤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6,300톤 증가하였다. 눈다

랑어의 2023년 어획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만 4,032톤으로, 이러한 증가는 FAD 혼획량 증가에서 주로 기인하였다. 참다랑어 어획량은 3,402톤으로 7% 증가하였다. 기타 종의 어획량은 28% 감소한 9,824톤을 기록하였다.

112척의 선박을 보유한 에콰도르 선단의 2023년 어획량은 31만 468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이 중 가다랑어 어획량은 23만 1,478톤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동부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로, 전체 어획량 16만 3,539톤(전년 대비 16% 증가)을 기록하였다. 이 중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4만 3,747톤이다.

베네수엘라 선단의 어획량은 모든 어종에서 감소하였다. 이들의 어획량은 2021년, 2022년 4만 톤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거의 반으로 급감한 2만 6,691톤을 기록하였다. 이들의 주요 목표 어종인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2만 3,859톤이며, 가다랑어 어획량은 60% 감소한 2,800톤이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9일자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00달러

1월 말 가격 대비 톤당 50달러 하락

태국 방콕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지난 몇 주 전과 대비했을 때 톤당 50~80달러가량 하락하였다. 대량 구매자들은 톤당 1,380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계약은 톤당 1,400달러에 체결되었다. 이는 1월 말 가격 대비 약 3% 하락한 수준이다.

통조림 가공업체는 최종 구매자 수요 증가에 따라 가공업체 매입량을 늘렸다. 여러 공장은 3개월에 걸쳐 주문서를 작성 중으로, 이는 통조림 생산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하였고 가공업체가 매입량을 줄였던 전년도 동기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대부분 공장은 최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일부 공장은 수요가 최저 수준에 머물렀던 작년 연말의 영향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70% 정도만 가동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개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가공되는 가다랑어는 2023년 4분기에 나타났던 7~10kg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크기인 3~4kg 수준이다. 이러한 종류는 FAD 금어기 동안 스쿨조업으로 어획된 어획물로 추정된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16일자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50유로

전월 대비 5% 하락

인도양에서는 가다랑어 어획량이 전월에 소폭 증가한 후 2월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어획량은 여전히 적었고 가다랑어는 전월 대비 5%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선망선단은 FAD 어업에서 적정 크기의 가다랑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다랑어 거래는 톤당 1,350유로(약 1,459달러)나 심지어 더 낮은 가격에 체결되었다. 그 결과 1월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1월 가격(톤당 1,425유로) 대비 하락한 1,350유로로 하락하였다.

인도양 참치어업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가까워졌다.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선사들이

1~1.5kg 수준의 소형 가다랑어 어획물을 가공업체 및 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 중이며, 가공업체는 소형 가다랑어의 세척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사는 재고와 가격을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3kg 정도만의 어획물만을 어획하고 판매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일부 선사들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자원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고 우려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21일자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64엔 대만산 눈다랑어 kg당 782엔으로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1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장 제품 수입량 190톤(전년 동월 대비 9% 증가), 수입액 3억 5,500만 엔(19%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1,940톤(1% 감소), 수입액 123억 3,000만 엔(28% 감소), 가공품 수입량 3,722톤(12% 증가), 수입액 31억 900만 엔(19% 증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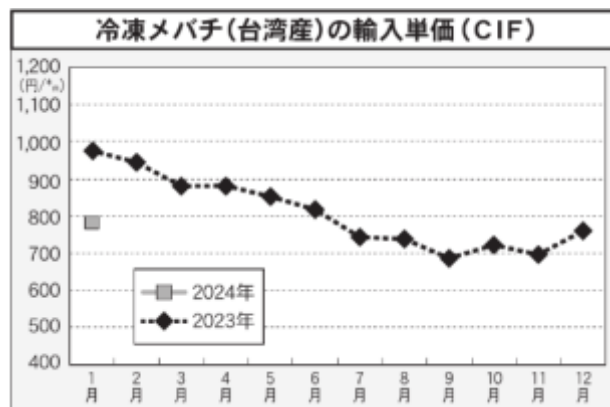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평균 단가는 764엔(전년 대비 21% 하락)으로, 2023년 12월 가격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한편, 수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만산의 단가는 kg당 782엔(20% 하락)으로, 2023년 12월 가격인 760엔 대비 상승하였다.

약 1년간 이어진 대기선 문제가 한숨을 돌리게 되면

서, 대만선의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 재평가가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3월이 결산 시기인 회사는 연도 말까지 불량을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재고를 급히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요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면, 초저온 냉동고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하여 바다 위에서 대기하는 선박이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3월 6일자



일본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그래프  
(2023년 1월~2024년 1월)



## 日 냉동 참치류 1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84톤

〈 2024년 1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3년 1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
	대만	330	27
	바누아투	-	-
	기타	109	105
	소계	464	133
황다랑어	한국	261	173
	중국	425	54
	대만	1,798	1,295
	필리핀	-	987
	인도네시아	-	26
	미국	-	-
	바누아투	36	56
	피지	-	16
	카리비시	-	4
	마셜제도	-	180
	기타	1,359	1,662
	소계	2,869	4,453
눈다랑어	한국	259	84
	중국	202	136
	대만	1,928	1,717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1
	세이셸	470	562
	바누아투	52	41
	기타	110	36
	소계	3,020	2,578
남방참다랑어	한국	-	-
	대만	95	6
	호주	-	-
	소계	95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3월 6일자



## EU, 그린워싱 규제 법안 진전

### 참치 산업 지속가능성 로고 영향 가능성 존재

EU는 참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그린워싱 (Greenwashing,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허위 혹은 과장되어,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 또는 잘못된 상품 정보에 대한 규제 법안 도입에 진전을 보였다.

EU 내부시장환경위원회는 2월 중순 무렵 기업이 환경 마케팅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속가능 로고를 사용하는 참치 산업, 특히 돌고래 안전 로고를 사용하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공통 기준 (common criterion)’을 제안하였다. 해당 안의 최신 초안은 지난주 85표 찬성표, 반대 2표, 부재 14표로 채택되었다. 해당 안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3월 개최가 예상되는 첫 번째 독회에서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이 된다. 해당 초안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유럽의회 총선 이후 구성될 새 의회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새 규정은 기업이 미래에 환경 마케팅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의한다. 유럽의회 측은 성명서를 통하여 “이

규정은 증거를 확인하고 주장을 승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기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의원과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자와 거래자가 환경 마케팅 관련 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채택된 초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인 검증 기관에 의해 평가된다.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은 조달에서 배제되고, 수익을 잃고, 연간 매출액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유럽의회 측은 위원회에 확인 절차가 빠르고 편리한 주장 및 제품 목록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참치 부문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사용된 온 돌고래 안전 로고가 가장 큰 환경 관련 주장이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회사는 이 로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로고 발행자는 주장을 입증할 지원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ldi 및 Costco와 같은 소매업체는 이미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19일자



## PNA 선망어업 MSC 재인증, 분쟁 절차 돌입

### CTTF서 이의제기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의 참치 선망어업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재인증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 초안이 이의제기로 인하여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이의제기한 투명참치어업연합(CTTF)은 상어 지느러미 채취 및 유실된 FAD 어구의 유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MSC는 3월 8일까지 독립 심사관을 지명하여 이견 해결 여부를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PNA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어업의 최종 보고서 초안이 1월 12일 공개되었으며, 이의제기 제출 기한은 2월 2일 오후 5시까지였다. CTTF는 이날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알렉스 호포드(Alex Hafford) CTTF 위원장은 2등급 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점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옵서버 커버리지가 20~4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적합성평가기관(이하, CAB)이 해당 어업에 상어 지느러미 채취 문제에 관하여 합격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PNA 사무국 CEO인 Sangaa Clark는 2023년 1월 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옵서버 커버리지가 부족했던 타 어업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MSC 인증을 취득한 반면, PNA 어업의 재인증에는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

였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잘 관리되는 최대의 지속가능 열대 참치 어업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MSC 인증을 포함한 지속가능 참치 제품 시장의 경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타 해양에서 조업하는 대규모 참치어업은 중서부태평양 참치 자원의 건강한 상태, 그리고 PNA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참치 자원 관리 수준으로 인하여 중서부태평양 참치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다.”

CTTF는 이의제기에서 위기종에 대한 평가 점수 또한 “취약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와의 상호작용 점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CTTF는 PNA 선단에서 미흑점상어의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종의 24%만이 산 채로 방류되는 반면, 인도양의 한 어업에서 산 채로 방류되는 비율은 50%라는 점을 들어, PNA 어업이 혼획물 방류 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CTTF는 또한 혼획된 종이 FAD 생존율이 낮은 아성체 미흑점상어로 판명되었고, 어업자들이 이러한 관행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TTF는 또한 FAD가 위기종에 미치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의 영향이 PNA 어업에서 잘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4일자



##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량, 30년간 최저치 선망선 약 300척 전제

일본 가공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2023년에 전 세계 선단으로부터 냉동 참치 구매를 늘렸다. 가다랑어에 대한 수요는 37% 증가하였다.

라운드 수입량은 14만 4,064톤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5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통조림 업체들이 14만 4,087톤을 구매한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입업체들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평균적으로 톤당 약 2,500달러 저렴한 4,221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원자재 감소는 수입량 증가 뒷받침하였다. 일본 엔화 환율은 작년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일본 세관은 수입 가격을 엔화로 계산한다. 환율의 변동도 CFR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대만 선단은 톤당 인보이스 금액이 4,716달러로 38%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 감소한 50,940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운송하였다. 인도네시아 선박은 2022년보다 9,600톤 가까이 많은 31,103톤을 선적하였다. 가격은 톤당 1,665달러로 다른 공급업체에 비해 매우 저렴했는데, 이는 화물이 가다랑어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중국 국적 선사는 1만 4,354톤을 선적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원자재 가격은 거의 절

반으로 하락하여 더 많은 가다랑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셸 국적 선주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상인 및 가공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호주 공급업체들은 사업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8% 증가한 7,434톤을 선적하였다. 높은 가격을 감안할 때 화물의 대부분은 톤당 평균 1만 1,484달러의 참다랑어로 구성되었다.

한국,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등 일부 선단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손실을 보았다. 이들 국가에 선적된 선박은 주로 방콕의 가공업체에 공급하였으며, 2023년 거의 6개월 동안 어획량이 부진하여 모든 바이어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어종별로는 가다랑어에 대한 가공업체의 수요가 급증하여 작년에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9,131톤을 더 수입하였다. 눈다랑어는 풍미가 풍부한 지방이 많은 참치로 일식 레스토랑에서 횡감으로 사용되면서 전체 수입량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수입량은 10% 증가한 4만 8,817톤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는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참다랑어의 구매량이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5일자





## GTA, 일본 메이호社와 제휴 계약 체결

### GTA-일본 기업 간 첫 제휴

글로벌참치연맹(이하, GTA)이 일본 주요 수산 가공 기업 메이호(Meiho)社와 일본 첫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GTA는 참치 산업에서 일본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 및 정치적 영향력이 이번 제휴를 특히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이 전 세계 참치 소비량의 1/4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어업 관행에 대한 메이호의 노력은 타 일본 기업에 선례가 된다고 GTA 측은 말하였다.

GTA는 2019년 창립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지지해 왔다.

GTA의 일본 지원 담당자인 Gunther Errhalt는

지속 가능한 참치 어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메이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메이호는 2006년에 가다랑어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획득하였다.

미국의 일본 특산 식품 수입업체인 Culimer USA는 메이호와 GTA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GTA의 다니엘 수다비(Daniel Suddaby) 전무이사는 2024년이 GTA "2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연맹의 중추적인 해라고 말하였다.

GTA는 확장된 글로벌 제휴 및 강화된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 참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20일자

## 2024년 태평양 동부 참다랑어 어획량 한도 발표

### 720톤으로 변경 없이 유지

2024년 동태평양 상업용 태평양 참다랑어 어업의 연간 어획 한도 발표

미 국립해양대기청 동부 태평양(EPO) 상업 태평양 참다랑어(PBF) 어업에 대한 2024년 연간 어획 한도를 발표하였다(문서번호: 89 FR 14594, 2024년 2월 28일).

IATTC 결의안 C-21-05를 이행하는 최종 규칙에 따라 2024년 연간 어획 한도는 격년 한도에서 2023년 어획량을 제외한 양 또는 720톤 중 적은 양이 어획 한도가 된다.

2024년 2월 5일 기준, 2023년 미국 상업 선박이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한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은 186톤이며, 이 양에서 격년 한도(1,054톤)를 빼면 1년 최대 어획 한도인 720톤을 초과하는 양이 된다.

따라서, 2024년의 어획 한도는 720톤(즉, 2023~2024년의 1년 최대 어획 한도)으로 변경 없이 유지된다.

\* 출처: 미 국립해양대기청, 2024년 2월 21일자



## NFI, 최초의 세포 기반 참치 스타트업 환영

### 수산물 수요 공급과 소비 확대 충족

블루날루(BlueNalu)는 2월 27일 국립수산연구소(이하, NFI)의 회원이 되었다. 이 회사는 어류 부문이 아닌 어류 조직 세포 기반 참치 생산에 종사하는 NFI의 첫 번째 회사이다.

블루날루는 1월에 열린 연구소의 연례 글로벌 수산물 시장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수산물 생산에 대한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수산물 공급의 공동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한 후 NFI의 초청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NFI는 어업 회사부터 소매업체까지 다양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최대의 수산물 무역 협회로, 모두 어획된 수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는 놀라운 발전이다. 스타트업 블루날루는 첫 번째 제품으로 세포 기반 참다랑어를 생산한 후 다른 수산물 대체품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날루는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산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NFI에 가입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세포 배양 수산물은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해결책이다. 오늘날 업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획과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NFI는 전통적인 공급 증가하는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포 배양 수산물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수산물 소비 확대를 뒷받침한다고 말하였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블루날루는 2023년 10월 태국의 타이 유니언, 일본의 미쓰비시, 한국의 풀무원과 계약을 확장하였으며, 2027년부터 상업적 규모 세포 기반 참다랑어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일자





## SPRFMO, 노동 및 인권 침해 대책 지지 선언

### 제12차 연례회의에서 결의

남태평양어업관리기구(이하, SPRFMO)는 에콰도르 만타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홈볼트오징어 어업의 노동 규약 및 인권 침해 대책을 결의하였다.

이는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 알디(Aldi), 그루포 프로판드(Grupo Profand) 등 미국 및 EU 거대 가공업체,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주요 수산기업과 산업 협회가 IUU 어업 근절 및 남태평양 어업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결의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NGO인 Sustainable Fish는 스페인어의 공식 언어 인정 및 대규모 어선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완화 대책 등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회원국 대표단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하, CNCP)은 공해상에서 홈볼트오징어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9개의 개별 제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고 Sustainable Fish는 말하였다.

이 제안은 홈볼트오징어 지속가능 관리 위원회(이하, Calamasur)가 조직한 가공 산업 및 장인 어업 대표의 지지와 함께 주요 수산기업, 산업 협회 등의 지지를 받았다.

노동 여건과 함께 SPRFMO 관할 수역 조업 선단에서 보고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2개의 중추적 제안이 에콰도르,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의 주도로 승인되었다. 이 조치들은 선원의 권리 보호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Sustainable Fish는 말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공식 언어 포함을 요구하는 에콰도르의 제안은 중국 대표단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Calamasur의 알폰소 미란다 위원장은 이러한 반대를 비판하면서 스페인어 사용 연안국이 협상에서 겪는 불리함을 강조하였다.

추가로 승인된 조치들은 운송 중 모니터링, 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선상 옵서버들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과학 기반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선상 옵서버에 관한 최종 제안은 초기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회의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항만국 조치의 시급한 시행 및 대규모 선단의 생태계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 구역(area of concern)’의 설립과 같은 주요 제안들이 거부되었다. 대신, 이러한 문제들의 계절 단위 해결을 위하여 에콰도르와 미국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작업반이 설립되었다.

미란다 위원장은 SPRFMO가 책임 있는 어업 관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기회를 놓친 점에 실망을 표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9일자



##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매입 경쟁 심화

북미·아시아 수요 증가...어획 상황 좋은 편

일본 일간수산경제신문에 따르면, 연초부터 어업이 시작된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매입 상황은 북미 지역과 아시아 등 해외 세력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자국산 살오징어 어획량 부진이 계속되면서 매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선단이 1월부터 시작한 '제1항해'는 1척당 1일 10~20톤을 어획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호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매입세가 강해지면서 제1항해 어획분이 이미 모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게 어업의 미끼용으로 사용되는 북미 지역 캐나다 오징어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대체재인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수요가 올라간 것이 매입 경쟁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미끼용으로 적합한 것은 100~200g의 2S 크기지만, 제1항해에서는 이 크기의 어획물이 전체의 20%에 불과하여, 이 크기보다 한 단계 위의 규격이자 일본 수요가 많은 S(200~300g, 전체 어획량의 70% 차지)까지 미끼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나 태국에서의 매입 움직임도 강해져, 매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가 구이용이나 젓갈용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2% 많은 약 7,100톤이 반입되었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 및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2023년의 평균 단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한 kg당 587엔을 기록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2월 9일자

## 페루 수산물 수출, 15.4% 증가

수출액 81억 9천만 달러...전체 수출의 50.6%

2023년 11개월 동안 페루는 16억 1,60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직접 소비용으로 수출하여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오징어 제품이었다. 수출액은 81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6%를 차지하며 작년보다 57.7% 증가하였다.

페루의 수출 품목 중 냉동 오징어가 7억 8,3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이며, 양식 새우가 2억

2,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4% 감소하였다.

어업 및 양식업 수출 대상으로 중국이 4억 2,800만 달러, 한국 2억 900만 달러, 미국 1억 9,100만 달러, 스페인 1억 8,300만 달러, 일본 7,100만 달러 순이다. 10.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2월 22일자



## 日 오징어 어획량, 60년 만에 최저치

### 수입량 및 재고를 포함한 공급량 20% 감소

일본의 오징어 공급량은 지난해 국내 어획량, 수입량, 이월 재고를 포함해 15만 톤에 불과하여 20%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0만 톤 이상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2000년 공급량인 66만 7천 톤보다는 75% 감소하였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는 주로 횡감과 진조 제품에 사용되는 일본의 주요 상업용 어종인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기록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2023년 어획량은 20% 감소하여 60년 만에 최저치인 1만 3,348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3년 생선회 시장으로 향하는 일본산 살오징어 어획량은 35% 감소한 1,550톤으로 1984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가공 제품용 냉동 살오징어 어획량은 60% 감소한 1,780톤으로 더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어획량 부족으로 많은 선박이 조업을 조기 종료하였다. 오징어 조업 허가를 받은 55척 중 중형 채낚기선 약 4척이 2023년 말까지 조업을 중단한 후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징어 공급 부족으로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높은 연료비와 생산 비용으로 가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일본산 신선 살오징어의 선

측 인도 가격은 22% 급등한 kg당 931엔, 냉동 가격은 51% 급등한 1,633엔으로 급등하였다.

오징어 가공품의 도매가격도 상승하여 2023년 12월 냉동 살오징어 가격은 전년 대비 72% 상승한 2,042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 더 엄격한 쿼터가 시행되면서 수입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9% 감소한 8만 2,800톤의 냉동 살오징어를 수입하였다. 2022년에 차년도 9만 9,950톤의 초기 수입 쿼터가 설정되었지만,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 수산청은 2024년에도 동일한 쿼터인 11만 4,950톤을 제안하였지만, 오징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오징어가공협동조합 무역그룹은 일본산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2015년의 1/5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공급량 감소와 원자재 및 기타 재료의 가격 급등은 전국의 오징어 가공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7일자



## 日 살오징어 어획량, 3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

평균 단가 kg당 1,019엔...21% 상승

일본 전국 단위 어업인 협회 및 조합의 연합체인 'JF 전어련(JF全漁連)'은 지난 16일, 일본의 2023년 살오징어류 어획량 집계를 발표하였다. 노토 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시카와현 일부는 잠정치로 집계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냉동, 신선을 모두 포함한 2023년 총어획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만 5,548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어련의 집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연간 어획량 역대 최저치를 3년 연속으로 갱신한 것이다. 극도의 공급 감소로 어가가 급등하여 평균 단가는 21% 상승한 kg당 1,019엔으로, 마침내 네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신선 제품 어획량은 22% 감소한 1만 3,847톤, 냉동 제품은 62% 감소한 1,700톤으로, 양쪽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특히 냉동의 낙차 폭이 컸다.

신선 제품은 산리쿠 지구, 규슈 지구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홋카이도는 40% 감소하였고, 혼슈·동해 지구는 60% 감소하였다. 냉동 제품은 하코다테, 하치노헤, 야마가타, 이시카와 등 주요 양륙항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냉동 제품(선상 냉동)을 생산하는 중형 오징어채낚기선은 동해 어장에서 가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어황이 저조했다는 점에 영향

을 받았다.

살오징어류 어획량은 2015년에 10만 톤 이상의 규모였으나, 2016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에는 2만 톤 미만을 기록하면서, 10년 전(2013년, 총 15만 7,200톤)과 비교하면 10% 수준에 그쳤다.

한편, 평균 단가는 신선 제품이 21% 상승한 kg당 950엔, 냉동 제품이 48% 상승한 kg당 1,581엔이었다. 수량 감소 폭이 컸던 냉동 제품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 단가는 kg당 1,019엔을 기록하며 네 자릿수에 도달하였다. 1960년부터 집계된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 국산 살오징어류의 평균 단가는 1986년의 kg당 915엔이 최고치로, 2023년의 평균 단가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산지 가공업자에 따르면, 일본 국산 살오징어의 용도는 태반이 소매 판매 또는 외식용 재료이며, 수량 및 가격 면에서 가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 현지 무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가공 원료로는 이미 수입품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2월 20일자



## 명태 어업, 긍정적인 역동성 유지

### 과학 옵서버와 검사관이 조업 통제

2월 13일까지 극동 수역의 명태 어획량은 총 39만 4,000톤으로 작년보다 9.5% 증가하였다. 청어는 10만 7,700톤(73% 증가)이 어획되었다.

대구 어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초부터 극동 지역에서 거의 1만 9,000톤이 어획되었다. 2013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100척 이상의 어선(대형 및 중형)과 34척의 운반선이 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소속 40명의 검사관이 이 수역의 전재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어선에는 해양과학원의 과학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다.

조업선과 운반선의 안전은 쇄빙 구조선이 책임지고 있다.

2월 13일, 연해주 지역의 생선냉동고 적재율은 51%이다. 러연방수산청에 따르면 5만 8,4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터미널에 있으며, 여기에는 2만 7,000톤의 흰살 생선(명태, 청어, 대구류), 9,000톤의 연어 및 기타 종(참치, 넙치)이 포함되어 있다.

명태 2만 6,600톤과 청어 1만 6,400톤을 포함하여 5만 100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33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로 접근하고 있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5일자

## 러, 2월 중순까지 62만 6천 톤 어획

### 어획량 꾸준히 증가

2월 13일까지 62만 6천 톤 이상을 어획하였으며, 이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양이다.

극동 수역은 55만 8,600톤(18% 증가)을 어획하였다. 명태, 대구, 청어, 가자미가 성공적으로 어획되었다. 조업선은 총 324척이 조업하고 있다.

북부 수역에는 대구, 해덕 등을 포함하여 총 3만 7,600톤을 어획하였다. 열빙어 어획도 시작되었다.

북부 수역에는 51척의 선박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10척 더 많다.

아조프-흑해 수역은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6,840톤을 어획하였다.

멸치 어획량은 6,700톤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가하였다.

모든 어종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며 냉동에서 통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산물의 생산 원료로 사용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2월 14일자





## 러, 2월 말 전체 어획량 88만 톤 초과

2023년 대비 8% 증가

러연방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올해 어류 및 수산물 생산량은 총 88만 400톤으로 지난해 대비 8% 증가하였다.

러시아 어획 증가는 주로 극동 지역 어부들이 제공하며, 이 수역의 생산량은 76만 톤(2023년 대비 15% 증가)에 달하였다. 세부적으로 명태(9.5% 증가), 대구(4% 증가), 가자미(15% 증가), 청어(62% 증가)의 어획 실적은 증가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작년에 비해 어획량 증가

율이 34.5%로 8,700톤 이상이 어획되었다. 멸치 어획량을 30% 늘려 8천 톤까지, 툴카는 20톤에서 640톤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연방수산청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산물 생산량과 국내 및 해외 시장으로의 수산물 공급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2월 29일자

## 러, 3월 5일까지 66만 5,000톤 어획

명태, 청어 어업 원할

러연방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3월 5일까지 극동 수역의 명태 어획량은 12% 증가한 66만 5,000톤을 기록하였다.

청어 어업은 작년 수준보다 53% 증가한 11만 5,500톤이 어획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극동 수역의 대구 어획량은 30만 톤으로 2023년 수준에 해당한다.

2024년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의 어업 발전을 위한 회의가 러연방 수산청 부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현재 100 척 이상의 조업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쇠빙 예인선 수보르베츠가 어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3월 5일까지 연해주 수산물 총적재량은 전주에

비해 감소하여 38%에 달하였다. 수산 터미널에는 4만 3,7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있다.

3월 2일까지 명태 4만 톤, 청어 4만 2천 톤, 대구 1,700톤 등 48.8만 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22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

성공적인 어업으로 인해 도매 부문의 명태와 청어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러연방 어업자원공사에 따르면 극동 연방 지구의 신선 냉동 명태 제품은 연초보다 가격이 15.2%, 청어는 1.1%, 대구는 2.2% 하락하였다. 중부 지역은 연초 대비 명태 도매가격은 10.5% 하락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2월 28일자, 3월 5일자



## RFC, 명태 연육 생산량 두 배 늘어

### 러시아 전체 연육 생산의 60% 이상 차지

러시아 최대 명태 어업 업체인 러시아 어업 회사(이하, RFC)가 2023년에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3만톤의 명태 연육을 생산하였다고 밝혔다.

RFC의 총생산량은 2023년 러시아 연육 생산량 4만 8,000톤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회사의 명태 필렛 생산량도 2023년에 전년 대비 8% 증가한 3만톤, 명란 생산량은 27% 증가한 7,000톤을 기록하였다. 전체 명태 제품 생산량은 21% 증가한 21만톤을 기록하였다.

슈퍼 트롤어선 4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는 RFC의 선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9% 증가한 33만 7,000톤 이상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2023년에는 메카닉 마슬락과 메카닉 시조프 두 척의 새로운 트롤 어선이 RFC 선단에 추가되었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신형 트롤어선인 카피탄 마르티노프 ST-192 모델이 2024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11월, RFC는 메카닉 시조프호가 시험 운항을 마치고 남 쿠릴 인근에서 명태 조업을 시작한 후 다섯 번째 신형 명태 슈퍼 트롤 어선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인도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RFC는 필렛과 연육을 생산하기 위해 선박을 용선 및 개조한 여러 회사 중 하나이지만 EU 번호를 얻지 못해 필렛의 주요 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다.

그 결과 러시아 명태 공급업체들은 2023년 약 5만톤에서 2027년 11만 5천 톤으로 연육 생산량을 늘려 아시아에서 저가 공급으로 미국 공급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RFC는 2023년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량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에는 명태 연육(전년 대비 3.2배 증가), 명태 필렛 및 민스(80% 증가)가 포함된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주요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회사는 주장한다.

또한 멕시코,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말레이시아에 첫 선적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19일자



## 러-벨라루스 합작 기업, 러 명태 조업

### 러-벨라루스 어업 협정 근거

지난 2023년 벨라루스에 러시아 극동수역 EEZ에서의 명태어업 허가가 발급되었다.

이 허가는 2002년 3월 13일 러시아-벨라루스 정부 간 협정의 틀에서 개최된 제20회 양국 어업위원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어업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에 의한 공동 조업이다.

이 어업협정은 2002년에 서명되었지만, 러시아 EEZ에서 벨라루스 국적의 어업 생산에 대한 접근 확대를 상정한 조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대가 되고 나서이다.

지난 2023년 3월 러시아 수산청 연해주 지부는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5만 1,000톤의 명태 조업에 대한 4건의 허가를 발급하였다.

어획 쿼터는 베링해에서 90%, 오호츠크해에서 거의 전량이 연말까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 '어획 쿼터'에 접근하여 조업을 한 것은

벨라루스-러시아 합작 기업(Soyuzniy Rybny Promysly)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2022년 중반에 등록되어 현재 2척의 트롤 어선(Porfiriy Chanchibaze, Mys Rubikon)이 조업하고 있다.

합작회사의 자산은 7억 루블로 약 170명의 직원이 고용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러연방수산청 연해주 지부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러시아 EEZ에서 벨라루스의 명태 어획 소진율은 14.5% 달성하여, 7,400톤을 어획하였다.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올해 할당된 벨라루스의 총쿼터는 5만 1천톤으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명태 어업에 대한 6개의 허가를 발급받았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2월 22일자,  
Fishnews, 2024년 2월 29일자

## 러, 남극 어업 재개

### 러시아의 해외 생산량 증가 기여

러시아 조업선이 2024년에 남극에서 조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러연방수산청장은 말하였다. 수산청장은 러시아는 오랫동안 남극에서 조업하지 않았으나, 2024년 여름에 남극에서 크릴 조업을 시작 예정이라고 알렸다.

530만 톤을 어획하는 러시아는 해외에서 80만

톤을 해외에서 어획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원이라고 수산청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지정학적 상황이 어렵고 많은 항구가 러시아 선박에 대해 개방이 되지 않지만, 조업이 가능한 곳은 아직 남아 있다고 수산청장은 밝혔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3월 2일자



## 알래스카 명란 경매, 10% 증가 전반적 어획량은 줄었으나 명란 제품 증가

미국의 알래스카 조업선단은 이미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할당된 쿼터의 48%를 어획하였으며, 러시아 오토츠크해에서는 TAC의 40%를 어획하였다.

2024년 A 시즌의 알래스카 명란 경매는 3월 5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되며, 일본과 한국 구매자들에게 5,000~6,000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A 시즌의 첫 시애틀 경매에서 판매된 4,600톤보다 약 10% 더 많은 명란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 베링해에서 알래스카 어선들의 명란 어획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명란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MFS)에 따르면 2월 24일까지 한 주간 명란 어획량은 베링해에서 7,160톤, 알래스카만에서 378톤으로 지난해 같은 주에 비해 각각 10%, 29% 증가하였다.

2월 24일까지 알래스카 선단은 베링해와 알래스카 만에서 할당된 A 시즌 쿼터의 42%에 해당하는 28만 752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수치로, 시애틀의 한 소식통은 언더커런트 뉴스에 "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연안 부문에서 어획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러시아 연방 수산해양연구소 태평양 지부(TINRO)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선단은 2월 25

일까지 오토츠크해에서 총 42만 3,100톤의 명란을 어획(지난해 같은 기간 43만 7,400톤 어획)하여, 할당 TAC의 39.1%를 소진하였다.

이 어선들은 현재 캄차카-쿠릴과 캄차카 서부에서 오토츠크해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

캄차카-쿠릴 수역의 누적 어획량은 17만 1,000톤으로 할당량의 64.2%를 소진하였다. 2월 19일~25일 주간에는 대형 트롤어선 2~16척과 중형 트롤어선 2~21척이 조업에 참여했으며 척당 일일 어획량은 각각 100.9톤과 60.3톤을 기록하였다. 어류 크기는 평균 454g으로 암컷 어류가 전체 어획량의 42.5~61.5%를 차지했고 알 회수율은 2.2~4.2%를 기록하였다.

서부 캄차카 지역에서는 2월 25일까지 총어획량이 13만 9,000톤으로 할당량의 40.6%를 소진하였으며, 척당 일일 어획량은 대형선 111.5톤, 중형선 49.2톤으로 집계되었다. 오토츠크 북부에서는 지금까지 10만 3,900톤을 어획하여 쿼터의 30.3%를 소진하였다. 이 지역의 주종 알 회수율은 3.5~4.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어업생산자는 전통적으로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부산에서 명란 경매를 간헐적으로 조직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3월 4일자



## 러, 콩치 자원 남쿠릴 어장으로 회귀 예상

### 기후 변화, 북서태평양 콩치자원 분포에 영향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해양어업연구소 ‘브니로’는 콩치 자원이 앞으로 수년 안에 전통적인 어장인 남쿠릴 수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중장기 예상을 제시하였다.

기후 변화가 북서태평양 콩치 자원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소구치 해류(磯口海流)의 장기간에 걸친 격화 현상이 쿠로시오계 자원 분포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어업, 특히 주요 어장의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콩치 자원 집약이 외양(外洋)에서 형성되면서, 사실상 러시아 어업의 조업 중단을 초래하였다.

지난 2년간 콩치의 먹이 섭취 회유는 일본과 쿠릴 열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에서 시작되어 여름-가

을 쿠릴 열도 북부에서 베링해 남서부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에는 서부까지 확대되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수년 내로 상업적 콩치 자원의 집약이 전통적 어장이었던 남쿠릴 수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을 시사한다.

이소구치 해류는 2000년대 홋카이도 동쪽 1,000km 앞바다에서 발견된, 쿠로시오를 발원으로 하는 해류로, 따뜻한 쿠로시오 조수를 운반하여 오야시오 조수(일본 동해안을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에 의한 아한대 해수와의 사이에 강한 수온 전선을 형성한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2월 29일자





## WTO 수산 보조금 협상, 합의 도달 실패

###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

각국 대표들은 2022 수산 보조금 협정과 관련,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협상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진행되었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아메리칸사모아 등 태평양 도서국 대표들은 수산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상한선을 요구하는 등 협상 막바지까지 2차 협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천명하였다.

연말 휴식기 이후, 협상가들은 1월 15일부터 재소집되어 남획 및 생산 과잉을 초래하는 보조금 근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선단을 보유한 EU와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하는 협정 초안 텍스트의 접근 방식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해당 접근 방식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원국 영해 외부에서의 조업에 대한 보조금도 금지하는 제안과 관련한 유연성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협상단은 WTO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한 해당 보조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면제 조건을 포

함한 주요 문제에 대하여 협상단 간에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정 초안 텍스트의 제안은 최대 보조금 제공 국가 20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이 가장 엄격한 조사를 받고, 전세계 어획량의 0.8% 미만을 차지하는 최빈국은 보조금 금지 조치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진국 협상단은 개발도상국의 어족 자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제 조치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측 협상단은 보조금의 대부분이 영세 장인 어업 유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 원양 선단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인도가 25년간의 이행 기간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뒷전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이들이 보유한 소규모 영세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수산 보조금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산 보조금 증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수산 보조금 협정에 동의하였던 중국은 수산 보조금 증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야생생물기금(이하, WWF)의 수산 보조금 협



정 부문 글로벌 리더인 Ann Holl-Buhl은 “영양과 생계를 수산업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건강 및 복지를 위협하는 남획에 대한 유해 보조금에 종지부를 찍을 큰 기회를 놓쳤다.”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태평양 지역 NGO의 네트워크인 세계화태평양네트워크(PANG)의 Adam Wolfenden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예상되었던, 태평양 도서국에게 강요된 표준 이하의 조건에 비하면 더 나은 결과이다.”라고 말

하였다. 뉴질랜드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Wolfenden 대변인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많은 협상과 함께 대규모 원양 선단에 책임을 돌리게 될 결과에 대하여 힘든 싸움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필리핀과 남아공이 협정에 참여하면서, 2022 수산 보조금 협정은 총 71개국의 비준을 받았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최소 11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4일자,

Seafoodsource, 2024년 2월 8일자

## 美, 수산 보조금 문제에서 노동자 권익 강조

### WTO 회의에서 美 대표 호소

미국 통상대표부(이하,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지난 2월 26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각료회의에서, “무역 정책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잘 반영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며, WTO와 국내 통상정책에서 노동자 권익 중시 보호를 호소하였다.

해당 발표는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 등을 테마로 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초점이 되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강제 노동을 하는 선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타이 대표는 비시장적 정책을 문제시하였다. 타이 대표는 이러한 정책이 “무역의 왜곡과

비시장적인 과잉생산을 낳아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거액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노동자 중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노동자 보호 조항을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이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2월 28일자





## EU 지속가능성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권...과반수 도달 실패

수년간의 실랑이를 겪으며 EU 의원들이 추진한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서 참치 등의 관련 기업은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야 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해당 법안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였다. 전문가들은 3월 15일까지 EU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하였다.

EU 이사회의 상임 대표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과 달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권하면서 해당 안은 과반수 도달에 실패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초반부터 해당 법안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EU 의회는 회원국과의 협상을 위한 입장을 채택하였고, 12월 EU 회원국들은 EU 의회 의원들과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다. 해당 제안은 2022년 2월 처음 제시되었다.

새 법안은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이고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EU 기업에 적용되며 이들은 공급망의 위험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직원수 500명 이상이고 전세계 매출이 1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모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非) EU 기업이어도 전체 매출이 1억 5,000만 유로 이

상이고, 이 중 4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EU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볼튼(Bolton), Jealsa, Frinsa, P&P 등의 주요 EU 참치 기업이 대상이 되며, 통조림 및 파우치 참치 제품을 구매하는 최종 소매업체를 포함한 공급망의 이해관계자도 포함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라 볼테르(Lara Wolters) 네덜란드 대표 EU 의원은 부끄러운 결과이며, 회원국들이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였다.

환경 단체들은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WWE 유럽정책실 지속가능 재정정책 책임자인 Uku Lillevali는 이번 결과가 “EU 회원국들이 마지막 순간에 해당 법안을 무산시키면서, 파괴적인 사업 관행에 영향을 받는 생명, 지역 사회, 생태계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로서 EU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혔다.”라고 비판하였다.

2023년 6월, 유럽 다수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새로운 법안의 규제 부담이 너무 크고 조직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단체의 Markus Beyre 국장은 법안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처벌 그 자체가 목적처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29일자



## 홍해 위기로 공급망 붕괴 및 인플레이 우려 가중

2024년 상반기 인플레이 예상...일찍 수습될 가능성 존재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촉발된 홍해 해운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금융기업 JP모건에 따르면, 전세계 국제 화물의 약 3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며, 이번 위기는 세계 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화물선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서 운송 기간이 약 30% 증가하였고,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JP모건 수석 경제분석가 Nora Szentivanyi는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특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통상적 항로(특히 아시아발-유럽행)의 운임이 약 5배로 급등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해상 현물 운임은 특히 증가하였다. 2024년 1월 25일자 중국발-미국 서부 연안행 및 동부 연안행 운임은

2023년 11월 대비 각각 140%, 120% 증가하였다.

운임 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JP모건 리서치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2024년 상반기 동안 전세계 필수재(core goods) 인플레이션 지수가 약 0.7%포인트 상승하고, 전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지수가 약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혼란이 진정되면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운송 사업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운임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12일자

## EU가 다시 한번 태국 수산업에 영향

2025년까지 EU 간 FTA 체결 예상

유럽연합과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였다. 태국과 EU 간의 FTA는 2025년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태국의 어업 관리에 관한 대화이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도입하고 어업에 관한 왕실 법령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국은 2015~2019년 동안 EU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EU는 변경 사항이 규제

체계 약화를 일으키지 않기를 희망한다. 태국 어민은 국가 통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EU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태국의 4위 무역 파트너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태국에서 EU로 수입된 생선 및 수산물은 연간 3만 9,600 톤으로 총 1,300만 유로에 달하였다. 태국은 주로 유럽 시장에 가공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참치 통조림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5일자



## 中, 라틴 아메리카 해양 생태계 위협

### 지속 가능, 생물다양성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남미 해안 근처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어획 행위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칠레,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과 지역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연안 국가들의 주권이 끝나는 광활한 바다와 공해에서 소리 없는 위기가 시작되었다. 침략적인 어법으로 무장한 영향력 있는 중국 어선들이 국가 관할권을 피해 남미 국가들의 해양 생태계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칠레 남단의 차가운 바다부터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해안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어선의 영향은 남미 대륙 전역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풍부한 해양 생물로 축복받은 이 국가들은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으로 인한 환경 및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아르헨티나는 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 선박이 남서대서양에서 조업하는 바람에 오징어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등 해양 생물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200해리 떨어진 남서대서양의 풍부한 해양 생태계인 블루홀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월부터 7월까지 성어기에는 약 400척의 선박이 이 수역에 모여 저인망 그물을 설치해 대구를 잡거나 불빛을 켜 오징어를 조업한다. 글로벌 피싱 위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수역에서 중국 선박의 조업 시간은 2013년 500km<sup>2</sup>당 6만 1,727시간에서 2023년 38만 4,046시간으로 6배 증가하였다. 물론, 다른

국적의 선박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국적이다.

페루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어업 투명성은 페루 불법 침입에 대한 환경 보호론자 및 어촌계의 외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페루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박의 항구 접근 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불법 어업을 억제하려는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 인하여 중국 선박이 계속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어류와 포유류의 자연 이동 패턴을 방해하여 적조와 같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중국 선단의 불법 어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법 어업 위반이 기록된 적은 없지만 중국 선박이 칠레 해역을 지속적으로 통과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

에콰도르 역시 중국 어선의 존재, 특히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 보호구역인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의 존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수천 마리의 상어를 실은 선박이 나포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끌어냈다. 그러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선단의 조업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흄볼트오징어와 같은 주요 어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물다양성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엄격한 규제와 국제 외교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요구한다.

\* 출처: LatinAmericanPost, 2024년 2월 27일자



## 남극의 경제적 이익은 최소 2,760억 달러

남극 어업이 주는 이익은 4억 달러 수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남극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최소 2,760억 달러에 달한다.

과학적, 자연적 혜택부터 경제적 이익까지 남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 청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계획, 기술,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시장 중심의 세상에서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남극과 남극해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극해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흡수하고 남극해의 얼음은 열을 반사하며, 이 과정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극해는 또한 전 세계로 물을 운반하여 열, 담수, 탄소 및 영양분을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비용의 관점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극의 빙산에는 3,000만 km<sup>3</sup>의 얼음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얼음이 녹는다면 전 세계 해안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남극 지역이 제공하는 다른 혜택은 더 눈에 띈다. 인간은 식품,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을 위해 이빨고기 및 크릴에 의존하고 있다. 남극해가 더 따뜻해지고 산성화되면 남극 지역과 다른 지역의 어류 자원에 영향을 미쳐 일부 종은 멸종할 수 있다.

가치 추정에서 식량 공급과 같은 부분은 시장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피해 방지와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가치를 산정하기가 더 복잡하다.

남극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1993~1994년 연간 약 8,000명에서 2022~2023년 105,000명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남극 관광 산업의 연간 가치는 약 8억 2,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수산업에선 이 지역에서 어획되는 이빨고기 및 크릴의 톤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연간 약 3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탄소 저장, 해수면 조절, 빛 반사 등 '조절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연간 약 1,793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남극 대륙과 남극해의 생태계 서비스의 총가치는 연간 약 1,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부 생태계 서비스를 제외한 보수적 추정치다.

예를 들어, 남극의 영양분을 전 세계로 분배하는 남극 순환 해류와 인근 해협은 전 세계 어업의 가치를 약 28억 달러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 데이터 부족으로 남극의 과학적 연구의 가치는 추정할 수 없어 제외되었다. 하지만 남극 연구는 얼음과 해수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전 세계의 생계와 인프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Deccan Herald, 2024년 2월 27일자



## 러시아 어류 가공 장비 시장 크게 성장

### 제품 품질과 유통기한 향상

이 분야의 성장은 가공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TechBullion社は 지적한다. 시장의 성장은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최전선에 두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의 품질과 유통기한을 향상하는 정밀 절단 기술 및 첨단 냉동 기술 등의 기술 혁신은 이미 어류 가공 장비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성은 어류 가공 장비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확인되었다. 제조업체들은 물 소비와 폐기물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장비 시장의 주요 업체는 Marel社, BAADER社 및 JBT FoodTech社와 같은 회사가 있다.

러시아 어선주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및 외국

제조업체의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동시에 팬데믹과 제재 제한의 배경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장비 생산을 위한 회사의 자체 기술 및 생산 기반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장비 모델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속 생산은 어렵다. 지금까지 러시아 어류 가공 장비 제조업체는 주로 간단한 기계와 보조 장비 및 장치를 생산하며 그 성능은 이미 충분히 좋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주요 작업 방향은 제재된 장비를 우호 국가의 공급품으로 대체하고 자체 생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어류 가공용 장비 생산 개발은 농업 등 여러 산업의 기계 개발자 및 제조업체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3일자

## 러연방수산청 해외수역 쿼터 판매

### 대부분 신청 부족으로 미판매

러시아연방수산청은 국제협약 수역과 일본 EEZ 수역 상업적 어업을 위한 쿼터 판매를 위한 경매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오징어, 가오리, 가자미 등의 쿼터를 제공한다.

경매 문서에 따르면 총 41개의 할당량이 제공된다. NAFO 수역의 오징어, 가오리, 가자미, 강명태, NEAFC 수역의 농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짧은수염대구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 혹은 15년까지로 입찰은 3월 18일까지 접수하며 경매는 3.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전에도 이러한 쿼터를 판매용으로 제공되었으나 대부분 입찰 부족으로 판매되지 못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6일자



## 러, 바렌츠해에서 英 어업권 박탈

### 英 무역 제재 보복 조치

2024년 2월 21일, 러시아 하원은 바렌츠해에서 영국의 어업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영국이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중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측된다.

소련 정부와 영연방 정부는 1956년 5월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5년이 기한으로 영구 연장이 가능하며, 한 당사자가 파기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콜라반도의 해안, 카닌노스 케이프의 동쪽 본토를 따라, 코르구예프 섬 해안의 바렌츠해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할 권리를 취득했다.

이 조치에 대해 러시아 어업 업계 측은 해당 협정이 상호 이익 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에 영국에만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법률 전문가도 러시아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2월 22일자



## 러 수생 자원 이용세 공제 법안, 상원 승인

### 대부분 신청 부족으로 미판매

러시아연방수산청은 국제협약 수역과 일본 EEZ 수역 상업적 어업을 위한 쿼터 판매를 위한 경매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오징어, 가오리, 가자미 등의 쿼터를 제공한다.

경매 문서에 따르면 총 41개의 할당량이 제공된다. NAFO 수역의 오징어, 가오리, 가자미, 강명태, NEAFC 수역의 농어, 일본 배타적 경제수

역의 짧은수염대구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 혹은 15년까지로 입찰은 3월 18일까지 접수하며 경매는 3.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이러한 쿼터를 판매용으로 제공되었으나 대부분 입찰 부족으로 판매되지 못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6일자



## 러, 남태평양 수역의 지속 가능 어업 합의

쿼터 비율 전년 대비 6.8% 증가

제12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회의가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는 러연방수산청과, 해양과학원을 러시아 대표단으로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관리 수역의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에 관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조업선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업데이트된 IUU 선박 목록에 러시아 선박은 단 한 척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전갱이 쿼터에 대한 새로운 할당 방안을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10년 동안 남태평양 공

해수역에서 전갱이를 잡을 기회를 얻었다. 동시에 전갱이 어획 할당량에서 러시아의 쿼터 비율은 2023년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2023년 남태평양 협약 수역에서 러시아의 어획량은 전갱이 4만 2,317톤과 고등어 1만 7,143톤이었다.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은 2012년 8월 24일에 발효되었으며, 협약 제7조에 따라 남태평양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17개국과 2개의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2월 21일자

## 美, 러시아 원산 수입 수산물 유예 기간 연장

5월 말까지 3개월 연장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현지시각으로 20일, 러시아 원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유예 기한을 5월 31일 오전 9시 1분(미국 동부 섬머타임 기준)으로 연장하였다. 작년 12월 22일 이전 서면 계약합의에 근거한 수입 유예 기한은 2월 21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섬머타임 기준)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3개월 연장되었다.

미국은 작년 12월 22일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대상을 제3국에서 가공한 러시아 원산 수산물까지 확대하였다. 대상에는 러시아를 원산으로 하는 연어, 송어, 대구, 명태, 게 등이 포함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2월 25일자





## 러 내각, 연료 보조금 취소 조업 수역 확장과 수익성 개선에 필요

정부는 해상 연료 구매 비용 일부를 상환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령을 무효화하였다. 이 지원 조치는 세계 해양의 외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연료 보조금 규정을 규정한 정부 법령은 무효화되었다. 보조금 도입 결정은 2021년 여름에 이루어졌으며 원양 수역 조업 어민의 해상 연료 구매 비용의 최대 30%를 환급해 주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보상 금액의 10배 이상의 가치의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연방 예산에는 어민의 연료비 상환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었지만, 보조금에 대한 규제 체계 형성은

2021년 12월에야 완료되었다. 2022년에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2023년 8월에는 어업 단지 개발 프로그램에서 연료 보조금이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 지원 조치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어업 조합과 협회는 연료 보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해양 연료에 대한 비용 보상은 러시아 선박의 조업 수역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26일자

## 日 2023년 가계 어패류 지출, 실질 8% 감소 2인 이상 가구 가계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이 2월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인 이상 가구의 어패류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가구당 7만 4,978엔이다. 1인당 지출액은 2.9% 증가한 2만 5,854엔이다. 그러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증감률은 가구 기준으로 8.3% 감소하였다.

어패류 중 신선 어패류 지출액은 단순 비교로 2.2% 증가한 4만 1,059엔이며, 수량 기준으로는 5.4% 감소한 18.5kg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가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가장 많은 지출액을 기록한 것은 다랑어류로 3.5% 증가한

5,158엔이었다. 연어가 2.2% 감소한 4,889엔으로 뒤를 이었고, 모듬회가 0.9% 증가한 4,346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량 기준으로는 연어가 9.6% 감소한 2.07kg으로 최다였고, 그다음을 기록한 다랑어류가 1.6% 감소한 1.59kg이다.

초밥류 지출 방식의 경우, 도시락류가 2.9% 증가한 1만 5,518엔, 외식이 9.2% 증가한 1만 5,520엔이었다. 도시락류 지출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외식이 1만 5,000엔대를 기록한 것은 5년 만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2월 15일자



## FAO, 1950년 이후 세계 어업의 진화상 제시

### 중국 어획량 1992년부터 1위 지속

FAO는 1950년부터 2021년까지 어류 생산량 상위 10개국을 보여주는 도표를 작성하였다. 분석가들은 총 20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는 약 550종(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이 포함되었다.

이 기간 초에는 연간 약 300만 톤의 어류와 해산물을 생산한 일본이 선두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1960년대 중반에 두 배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페루에 밀려났다가 약 10년 후 잠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1년에 일본의 수산업은 420만 톤으로 감소하여 195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분석 기간 초기부터 소련은 상위 3위였으나, 1975년과 1989~1991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다. 1989년 소련의 생산량은 1,100만 톤을 넘어섰다.

1992년에는 중국이 선두 자리를 차지했고 분석

기간이 끝날 때까지 1위를 유지하였다.

러시아는 1993년에 10대 어업 강국으로 등장하여, 2010년대에 그 지위가 급격히 향상하여 2021년 말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당시 주요 3개국의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30% 미만으로, 2021년에는 총 9,120만 톤에 달하였다. 러시아의 2021년 어획량은 5백만 톤을 넘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세계 5대 어업 강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년 대비 8.7% 증가한 530만 톤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 지표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연어(60만 8,800톤,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음), 정어리(54만 3,900톤, 소련 이후 최고치), 명태(196만 톤, 25년 내 최고치)의 세 가지 어획 기록을 한 번에 확보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2월 19일자





## 美, 새우를 덜 구매하기 시작 금지된 항생제 확인 등 국경 검역 강화

작년에 미국으로의 새우 수입량은 78만 5,800톤으로 2022년 수준보다 거의 5만 2,000톤 감소하였다. 인도는 여전히 최대 공급국이다.

인도는 총 29만 6,100톤의 새우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였다. 2위와 3위는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가 차지했으며 이들 국가의 공급량은 각각 20만 5,500톤과 14만 6,300톤에 달하였다.

베트남(6만 500톤), 태국(2만 7,900톤), 멕시코(1만 5,600톤), 아르헨티나(1만 4,300톤), 중국

(3,600톤), 페루(2,200톤), 사우디아라비아(1,600톤)도 점유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보내진 새우가 모두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은 국경 검역을 강화하였다. FDA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인도의 수출업자 제품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되어 통관이 거부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4년 2월 13일자

## 성인이 섭취해야 하는 생선의 양은 얼마일까?

### 생선에는 자체 합성이 불가능한 아미노산이 포함

계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의 생선 섭취를 권장한다. 1회 제공량은 생선 필렛 100g으로, 일주일에 총 300g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다.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매주 최소 140g의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러시아연방보건부에 따르면 하루에 77g, 연간 28kg의 생선 및 수산물 섭취를 권장한다.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이다. 단백질은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전체 아미노산 세트를 포함할 때 고품질로 간주된다. 생선에는 인체가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은 일주일에 140~540g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생선 필렛 한 팩 정도에 해당한다.

\* 출처: Fishnet, 2024년 2월 12일자



## 바닷가에서 3

정 연 복

티끌의  
모래알 하나

햇빛 받아  
반짝반짝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아무리 작아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먼지같이 작은  
온몸으로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  
모래알 하나.





##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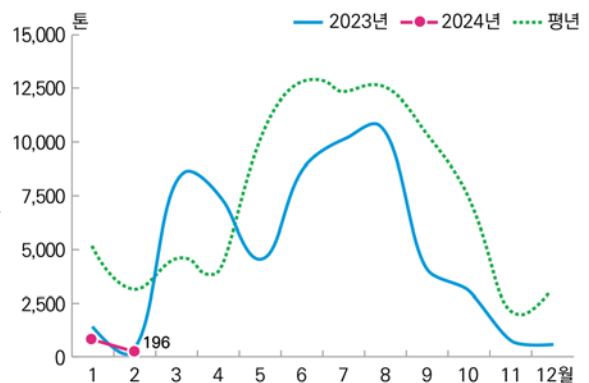
### 전월 대비 생산량 75% 감소 및 소비자가격 6% 감소

□ **생산동향**(1월 오징어 생산량 196톤으로, 작년 대비 75% 감소)

2월 오징어 생산량은 196톤으로 전월 대비 74.6%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2.0%, 93.8% 적었다. 이는 연근해산 어한기와 함께 최근 어황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수협별 위판량은 통영수협(62톤), 강구수협(30톤), 포항수협(14톤) 순이었다. 어획된 물량 중 72.0%가 선어로 위판되었으며, 활어(26.4%), 냉동(1.6%) 순이었다.

원양산은 1월 생산량이 작년 대비 부진하였으나, 2월에는 다소 회복된 어황을 보이고 있으며, 2월 말 기준 반입 실적은 없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5월까지 지난해 수준(3만 2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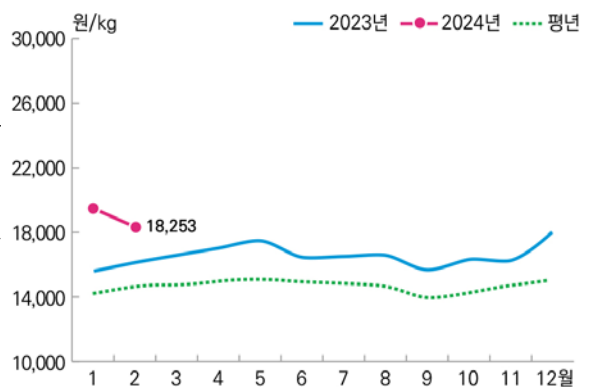
□ **가격동향**(2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6% 하락한 kg당 18,253원)

2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5,342원으로 전월 대비 18.5% 하락하였다. 이는 일부 소규모 자망어선을 중심으로 소량 어획되었으며 작은 사이즈(마리당 140g 이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근해산 어획 부진이 지속되며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8.5%, 8.4% 높았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26,433원으로 설 성수기 수요 증가로 전월 대비 7.6% 상승하였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8,253원으로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이루어지면서 전월 대비 6.4% 하락하였다. 그러나 공급 및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며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3.0%, 25.4% 높았다.





## □ 수출입동향(2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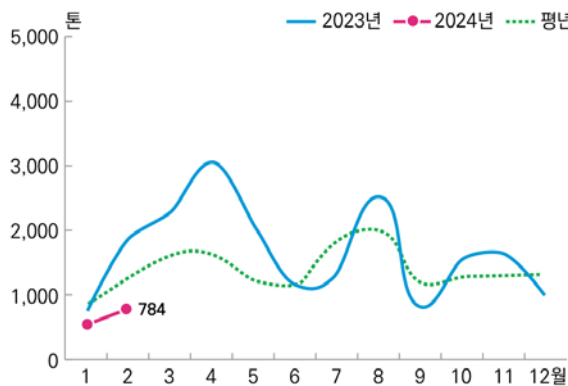
2월 오징어 수출량은 784톤으로 전월 대비 41.8% 증가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59.0%, 36.1% 적었다.

수출 국가별로 미국(501톤)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중국(21톤), 호주(18톤)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476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218톤)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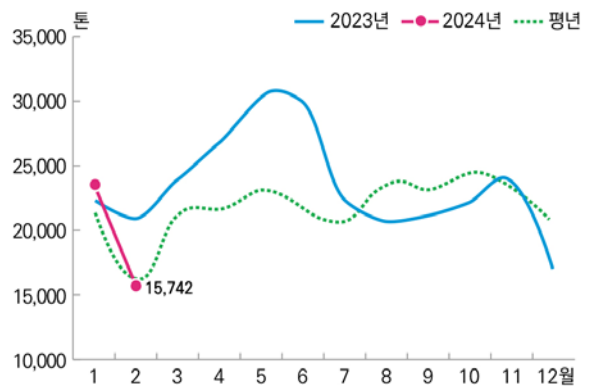
2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5,742톤으로 전월 및 작년 대비 각각 33.1%, 24.9%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페루(7,903톤)와 중국(6,580톤)으로, 상위 2개국의 수입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92.0%를 차지하였다.

페루산의 경우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및 냉동오징어, 중국산은 냉동 및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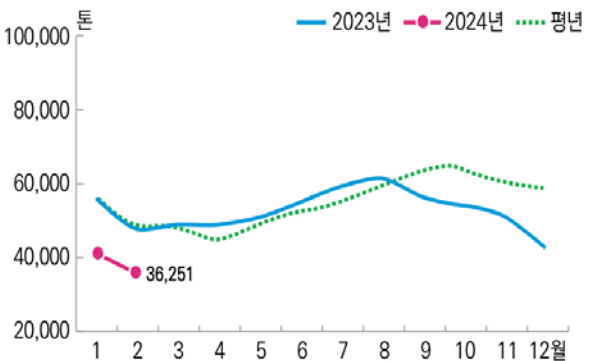


## □ 재고동향(2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1% 감소)

2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3만 6,251톤으로 전월 대비 11.4%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5%, 25.8% 적었다.

이는 원양산 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근해산 생산과 수입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출처: KMI 수산물측 3월호





## 2월 명태 국내 동향

### 전월 대비 수입량 30% 감소, 소비자가격 14% 감소

#### □ 생산동향(휴어기)

원양 명태트롤어업 휴어기로 명태 생산이 없으며, 입어협상 미타결로 인한 쿼터확보 지체로 조업시작 시기 도 지난해 수준으로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생산된 어획물 반입은 2023년 12월 24일 종료되었다.

#### □ 가격동향(2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14% 하락한 kg당 4,59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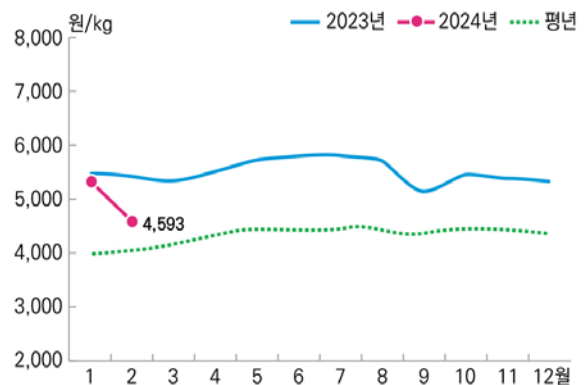
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24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다.

평년보다 6.6% 높았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8% 낮았다.

이는 ‘러-우’ 사태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간 명태 가격이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일부 대형소매점의 할인행사로 전월 대비 13.8% 낮은 kg당 4,593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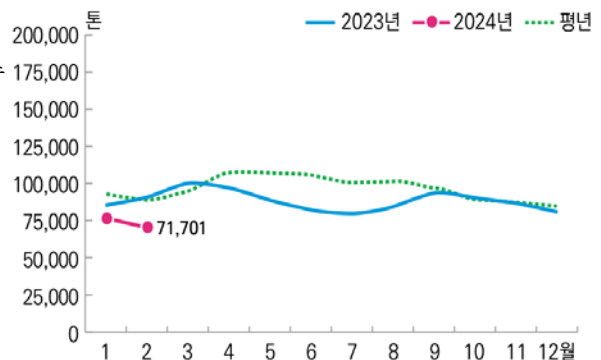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4.9%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14.7% 높게 형성되었다.



#### □ 재고동향(2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7만 1,701톤으로 반입 종료 및 수입 감소로 전월 대비 6.2%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20.0%, 21.0% 적었다.







□ 수출입동향(2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0% 감소한 2만 8,349톤)

2월 명태 수출량은 873톤으로 전월 대비 59.7%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86.0%, 86.3%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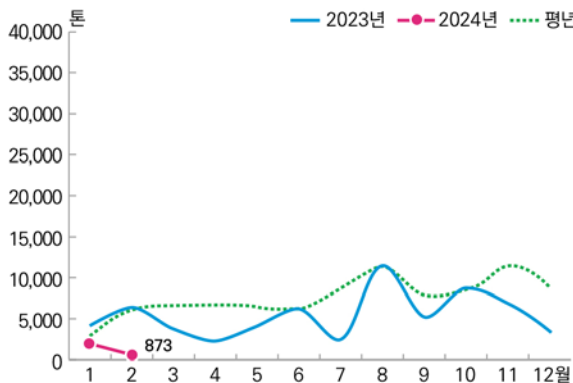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냉동명태가 중국(232톤) 및 베트남(157톤)으로, 냉동연육은 태국(175톤) 및 중국(97톤)으로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냉동필렛 수입량이 줄면서 전월 대비 30.3% 감소한 2만 8,349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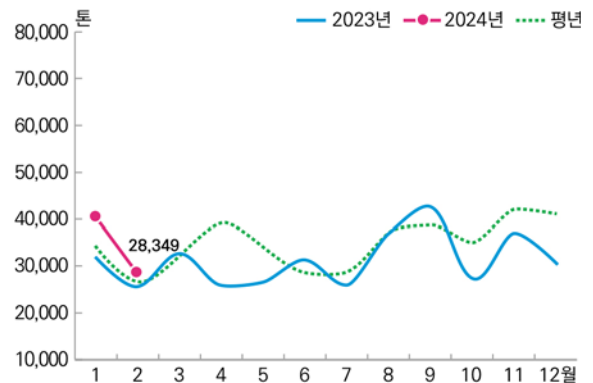
그러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2.6%, 19.3%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1만 5,513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5,288톤), 미국산 냉동연육(4,263톤)의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3월호



## 수산물 부담 완화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 3.22까지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화)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정부비축 오징어 방출 실적: (' 23.10~12) 1,039톤 → (' 24.1~2) 589톤 → (3월) 200톤(계획)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사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

**오징어·참조기 반값 판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 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 합니다.

중소형 오징어 10리당 소비자가격	4,596원 '24.2.19일 기준	→ <b>2,100원</b>
중형 참조기 10리당 소비자가격	2,803원 '24.2.19일 기준	→ <b>1,200원</b>



## 원양 준법조업의 나침반 조업감시센터 10주년

### 3.11(월) 조업감시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 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SNS 등을 활용한 업종시기별 주요 준수사항 사전 예고 등을 통해 IUU 어업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지

역 수산기구 및 주요 연안국 간 공조 체계 유지와 해외기관의 견학을 통한 기술·경험 전수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데 조업감시센터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조업감시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 해수부·해양경찰청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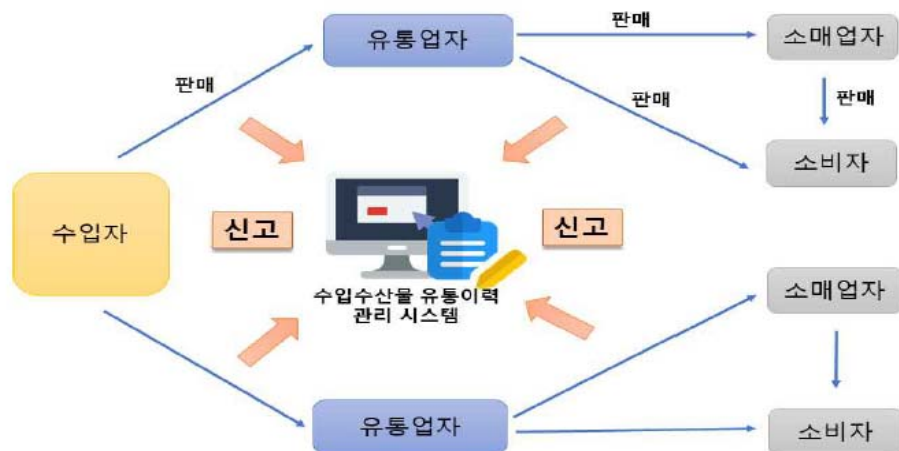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냉동꽂치, 냉동남방참다랑어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원양산 오징어 신속 공급으로 수급 불안 해소 차관, 원양 선사 간담회에서 국내 조기 반입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원양 선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양 오징어 조업 현황과 국내 공급 시기 등을 점검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3월 1주(~3. 9.) 기준 약 1만 9천 톤이 생산되었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생산이 종료되는 5월까지 전년 수준(약 3.2만 톤)만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주요 원양 선사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징어 조업 현황을 확인하고, 생산된 오징어가 4월부터 조기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각 선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조업 중 철저한 안전관리, 국제 규범 준수 등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정부 민간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보유한 오징어 200톤을 방출하도록 하는 등 오징어 공급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송명달 차관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작년에 생산이 부진하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행사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라며, "오징어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원양 오징어를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가 보유한 물량도 추가로 공급하여 오징어 수급 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 개시

###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4월 14일까지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하여 3월 14일(목)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3월 수산물 할인행사(3. 7.~24.) 지원 품

목도 확대(2월 6개→3월 최대 9개)하여 대중성어종 외에도 명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3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589-1602
		김효상 과장	589-1609			최봉준 과장	589-1613
		조성주 과장	589-1608			백상진 주임	589-1614
		김민재 주임	589-1622			박찬준 사원	589-1620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김영수 과장	589-1611			최상진 주임	589-1617
		최은혁 주임	589-1619			이승환 사원	589-1618
	총무부	공길웅 과장	589-1605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사	051-253-3388
		조성환 과장	589-1606			김현애 과장	
		이인수 사원	589-1607	경영지원본부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최광준 팀장	

해외수산물협업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67호	발행	2024년 3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